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테살 5, 13)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신년사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마련해주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직원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갑진년 새해는 보다 좋은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치를 더욱 높이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며 하느님 자비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실천을 맡겨 드립니다.

지난해를 잠깐 돌아봅니다. 기후 위기를 우리가 지난해를 잠깐 돌아봅니다. 기후 위기를 우리가

까이 체감했고, 평화도 경제도 위기 상황임을 체감하는 한해였습니다. 의료계도 코로나 이후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았던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기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지난 연말에 우리 병원에 전해진 소식들은 2024년을 준비하는 데 희망을 품게 하는 유의미한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설렘 가득 담은 2024년을 새로 받아 들고 우리 병원이 올해에 해가야 할 과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CS2000을 꼭 실천해야만 합니다.

급변하는 보건 정책 속에서 지방 병원이 살아남기는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무너질 때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전가됩니다. 매일 2,000명의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자는 CS2000 운동을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CS2000을 꼭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아야 합니다.

* 둘째, 4주기 인증평가 준비입니다.

이번 인증은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추적 관찰하며 평가를 한다고 하니 단기간에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 준비도 삶으로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CS2000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간단하게 2가지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받아 든 병원의 지표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질평가 등급을 유지하면서 세부 지표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고,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도 세부 지표가 모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등급 상향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두는 진료부와 직원들의 협조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CS2000과 4주기 인증평가도 진료부와 직원 모두가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세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2024년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CS2000도 실현하고 인증평가도 잘 마쳐서 올가을엔 기쁘게 한마당 축제를 해봅시다. 2024년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옛 우리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될 때 하늘도 돕는다는 뜻이지요.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날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날개를 만들어 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날개를 만들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 내려는 의지로 움직일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올해의 다짐을 가지고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CS2000과 4주기 인증평가는 과제가 아니라 기쁘게 나아가는 일상이 되게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민수기 6장 24절)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가정에도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 1. 2. 병원장 박명옥 리오바 수녀 배상

2024년 시무식 및 CS2000 선포식 개최

1월 2일 새해 첫 진료일을 맞아 우리 병원은 오전 8시 별관 성심홀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올해 시무식은 ‘CS2000 선포식’을 겸하였는데, 이는 매일 2,000명의 고객 만족을 실천하여 2024년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해로 삼고자 함이다. 박명옥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CS2000의 실천과 4주기 인증평가 준비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이어 “새로운 자세로 각 오를 단단히 해야 2024년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I 경진대회 성황리에 개최



12월 14일 성심홀에서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QI 경진대회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많은 부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경합하였는데, 올해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과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제로 ‘환자 공감 프로젝트-환자 되돌려 보내지 않기’를 발표한 외래 간호팀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약제팀(필요시 처방 의약품 실시기준 적합률 증대 활동)에게, 장려상은 외과계병동팀(수술과정 표준화를 통한 간호사 업무개선 및 환자 안전 만족도 향상)에 돌아갔으며, 아차상은 진단검사의학팀(부적합 검체 오류 줄이기)과 병리팀(병리과 정도관리 시스템 전산화 구축 활동) 그리고 인공신장실(칼슘, 인 수치 관리를 통한 혈액투석의 효율성 증대)이 수상하였다.

- 질향상팀 윤지윤 책임간호사

각종 대외 표창 수상 소식 이어져

지난해 연말 각종 대외 행사에서 여러 가지 수상 소식이 이어졌다. 먼저 11월 30일 감염관리팀 박혜인 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상이다. 더불어 12월 11일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한 해 동안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 공무원, 관련 단체 등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상인 만큼 매우 값진 수상 소식이다. 한편, 간호부 조미라 수간호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표창을 받았으며, 자원봉사팀 함은숙 팀장은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바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2023년 올해의 인증 관리 요원’으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았다.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지난 12월 10일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에 취약해진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라남도도와 순천시, 순천시의회 그리고 우리 병원이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원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1층 현관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는 안내문과 기념품 제공하였다. 특히 안전한 병문안을 위한 3대 원칙인 ‘확인하기’, ‘자제하기’, ‘지켜주기’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전문의 초대석

뇌졸중의 증상 및 대처 방법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번째로 흔한 사망원인(2020년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뇌졸중 역학 보고서 2018'에 따르면 연간 10만 5천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뇌졸중 발생 후 생존하더라도 3명 중 1명은 영원히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고 평생 이차적 예방을 위해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어떤 병인지, 그리고 뇌졸중의 예방 방법과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어떤 병인가요?

뇌졸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일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한 용어이고, 둘을 분류하자면 뇌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며,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뇌 안에 피가 고여 그 부위의 뇌가 손상되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이 뇌졸중의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뇌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어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면마비: 얼굴의 한쪽에 마비가 와서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2. 편측마비: 몸의 한쪽이 마비가 와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쪽 팔다리보다 힘이 떨어집니다.
3. 언어장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실어증이 발생하여 말을 못 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 시각장애: 시야의 한쪽 편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가 생기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5. 두통, 어지럼증: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픈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러워 비틀거리고 걷기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6. 의식장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의식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과 강종수 과장

약력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수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경과 임상교수
(세부전공 : 뇌졸중)
경남 권역성뇌혈관질환센터 뇌혈관센터 임상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영상의학 임상강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뇌혈관중재술 임상강사
현재 성가톨릭병원 신경과 과장

전문분야

뇌졸중, 뇌혈관 중재술, 두통, 어지럼증, 치매, 파킨슨, 알코올신경과질환

뇌졸중은 왜 발생할까요?

뇌졸중의 주요한 원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을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이고, 특히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혈압은 4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가지고 있고 젊었을 때는 고혈압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발견하고 필요시 약물치료와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등으로 적절한 혈압관리가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도 뇌졸중의 빈도가 2배 정도 높고 당뇨병이 있는 뇌졸중 환자는 사망률 또한 높습니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같이 평생 조절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뇌졸중 외에도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만성 신장병, 망막병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철저한 당뇨 관리가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뇌졸중 위험성을 많게는 17배까지 높일 수 있어 심전도와 같은 정기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식이조절,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적정 범위 내로 관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절주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좋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뇌경색의 경우 뇌혈관이 막힌 직후부터 초당 3만 2천 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받고 1시간당 뇌의 노화 속도가 평균적으로 3.6년 정도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막힌 혈관을 빨리 재개통시키기 위해 혈전용해제를 정맥으로 주사하거나 큰 뇌혈관이 막혔을 경우 직접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재관류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뇌경색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맥 내 혈전용해제 주사는 뇌졸중 발생 4.5시간 이내, 재관류 시술은 경우에 따라 증상 발생 하루 이내까지 시행할 수 있어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 내에 뇌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병원으로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고, 언어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질환으로 평소 예방과 뇌졸중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빠른(FAST)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안면마비(Face), 편측마비(Arm), 언어장애(Speech) 등의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Time)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 신임 진료과장 소개 |



응급의학과 김재혁 과장

약력 : 경희대학교 의학과 학사
가천대 길병원 인턴 수련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수련
목포한국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과장
목포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
국립중앙의료원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

전문 분야 :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노종갑 과장

약력 : 전북대학교 의학과 학사
부천순천향대학병원 부속 부천병원 인턴 수련
부천순천향대학병원 부속 부천병원 레지던트 수련
국군순천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목포한국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전문 분야 :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오민석 과장

약력 : 동아대학교 의학과 학사
노원을지병원 인턴수련
서울아산병원 레지던트 수련
제주한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삼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해운대부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문 분야 :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박병배 과장

약력 : 가천대학교 졸업
광주기독병원 인턴 수료
광주기독병원 레지던트 수료
순천아이미코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여수문화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전문 분야 : 소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위장관질환, 건강검진 및 영양상담



약제부에서 알려 드리는 재미있는 약 이야기

오메가-3(Omega-3)



약리작용

지방산의 한 종류인 오메가-3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또는 지방질 공급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약물로 사용되는 오메가-3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오메가-3-산트리글리세리드(omega-3-acid triglycerides)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정제한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omega-3-acid ethyl ester90)이 있다.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은 경구약의 형태로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감소시키고, 다른 약물과 함께 심근경색 후 이차 발생을 예방한다. 오메가-3-산트리글리세리드는 주사제의 형태로 다른 약물들과 함께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지방질을 공급해 준다. 오메가-3는 의약품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효능 · 효과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은 경구제(단일제)로, 오메가-3-산트리글리세리드는 주사제(복합제)로 사용되며 제형에 따라 효능, 효과에 차이가 있다.

- 경구제는 내인성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환자에서 상승된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로 사용된다. 심근경색 후 이

차 발생 예방을 위해 다른 약물(예: 항혈소판제 등)로 진행되는 표준요법에 보조요법으로도 사용된다.

- 주사제는 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 공급이 제한된 환자에게 주사 형태로 필요한 지방질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용법

경구제는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환자의 경우 1일 2g을 복용하나 필요시 1일 4g까지 증량할 수 있다. 복용하기 전에 적절한 지질저하 식이요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복용기간 중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위장장애를 피하기 위해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 심근경색 후 이차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g을 복용한다. 주사제는 환자의 상태 및 제품에 따라 용법이 다르므로 상세한 용법은 제품별 허가 정보를 따른다.

부작용

- 경구제는 소화불량, 트림, 복통, 변비, 복부팽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드물게 발진, 비출혈(코피), 저혈압, 두통, 어지러움 등도 유발할 수 있다.
- 주사제는 매우 드물게 혈액 또는 혈압의 이상, 면역의 이상, 고지질혈증, 고혈당증, 졸음, 호흡곤란, 구토, 두통, 홍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출혈시간을 증가시키거나 혈소판 응집을 방해할 수 있으며, 지방 과다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상호작용

경구제를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일부 진통제(아스피린), 일부 항암제(임브루비카)와 함께 투여 시 오메가-3에 의해 각각의 작용이 증가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출처 :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 - 약제팀 선봉무 약사

성가롤로자선회 후원자 명단 (2023년 7월 ~ 12월)

강경이, 강경희, 강다점, 강미주, 강민영, 강보람, 강소이, 강수진, 강유진, 강은진1, 강은진2, 강종태, 강현숙, 강영환, 강희경, 강태희, 고경숙, 고다은, 공민영, 공현주, 광미정, 광민식, 광상미, 광윤아, 구병기, 권성광, 권순진, 권정규, 기광서, 김지선, 김경수, 김경원, 김경애, 김계현, 김기쁨, 김기연, 김나영, 김나현, 김노을, 김누리, 김다은1, 김다은2, 김다원, 김다희, 김다혜, 김동은, 김동현, 김동휘, 김명정, 김명중, 김명희, 김명호, 김미소, 김미양, 김미자1, 김미자2, 김미정, 김미혜, 김민경, 김민지, 김반지, 김보임, 김복은, 김상수, 김상희, 김세영, 김선아, 김선영, 김선화, 김성수, 김성희, 김소영, 김수진, 김수진, 김수정, 김수현, 김순옥, 김승만, 김시규, 김원석, 김연진, 김윤이, 김윤정1, 김윤정2, 김윤주, 김윤진, 김은비, 김은선, 김은아1, 김은아2, 김은영, 김은진1, 김은진2, 김익수, 김인아, 김일승, 김영미, 김영빈, 김영웅, 김현진, 김현휴, 김예영, 김자영, 김재영, 김재훈, 김정근, 김정민, 김장아, 김제봉, 김제숙, 김충필, 김종찬, 김주옥, 김주영1, 김주영2, 김준길, 김지수, 김지선, 김지연김지혜, 김진, 김진아, 김진일, 김진희, 김창수, 김채영, 김춘미, 김치중, 김태균, 김하늘, 김혜민, 김현서, 김현숙, 김현아1, 김현아2, 김현정, 김현중, 김형락, 김혜란, 김혜원1, 김혜원2, 김홍주, 김효은, 김효정, 김희경, 김희자1, 김희자2, 김희진, 김희태, 나기영, 나재형, 남은경, 도현화, 도혜선, 류계서, 류성민, 류연경, 마상경, 마신애, 마준호, 명유라, 명환호, 문대성, 문라미, 문보림, 문숙희, 문영희, 문은영, 문지영, 문정희, 문채현, 민경태, 박가희, 박규숙, 박명옥, 박명주, 박명희, 박모선, 박미나, 박미숙, 박미옥, 박민근, 박민선, 박병록, 박보람, 박상진, 박상천, 박서이, 박선미, 박선금, 박선연, 박성지, 박소연, 박소영, 박소진, 박소희, 박송대, 박수미, 박수빈, 박수아, 박수정, 박숙영, 박순자, 박영미, 박영성, 박예빈, 박용인, 박유미, 박유선, 박유영, 박윤중, 박윤아, 박종복, 박중수, 박주연, 박주연, 박지담, 박지연, 박지영, 박진영, 박지혜1, 박지혜2, 박지혜3, 박재우, 박진경, 박진주, 박주용, 박천길, 박채이, 박현미, 박현선, 박현철, 박혜승, 박혜인, 박혜진, 박희정, 박봉민, 방유선, 변지여, 배옥란, 배지은, 배정현, 배진희, 배화영, 배효정, 백명화, 백수진, 서경희, 서나래, 서미애, 서미영, 서미정, 서민정, 서민화, 서범승, 서보희, 서영선, 서영호, 서영혜, 서우정, 서유리, 서은선, 서은채, 서재현, 서지원, 서찬영, 서원준, 서현화, 선시현선현숙, 성경정, 상나경, 성혜민, 소은지, 소자영, 손소미, 손은숙, 손지연, 손한나, 송경은, 송다현, 송명진, 송병섭, 송서정, 송승, 송영은, 송용선, 송우철, 송중미, 송지혁, 송효성, 신나라, 신미혜, 신순희, 신슬빈, 신에서, 신철호, 신행식, 신혜현, 심명진, 심윤경, 심지현, 심천섭, 안가희, 안경록, 안승희, 안연주, 안옥진, 안은초, 양기현, 양동호, 양민지, 양성금, 양영진, 양은실, 양정하, 양춘화, 여희주, 염윤지, 오대근, 오시은, 오서진, 오은정, 오전택, 오채린, 오창호, 오형선, 오현근, 옥영철, 왕미라, 우지선, 우애랑, 원내향, 위미환, 위재정, 위치량, 유규동, 유미아, 유선애, 유소연, 유아람, 유윤정, 유은영, 유정아, 유진아, 유진영, 유하나, 유효정, 윤문희, 윤사라, 윤수아, 윤승현, 윤영주, 윤이나, 윤준성, 윤지은, 윤현아, 이가희, 이경영, 이도경, 이대현, 이라연, 이마리아, 이미경, 이미덕, 이미진, 이민자, 이민혜, 이보라, 이상미, 이상준, 이선애, 이선영, 이선옥, 이성남, 이세창, 이소영, 이슬, 이숙향, 이슬기, 이슬빈, 이슬준, 이승희, 이시현, 이연희, 이영미, 이영복, 이영선1, 이영선2, 이왕재, 이원정, 이유빈, 이윤미, 이은경, 이은영, 이은정1, 이은정2, 이은자, 이이레, 이정석, 이정은, 이종순, 이주하, 이주향, 이지연,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영3, 이지훈, 이진경, 이창백, 이창호, 이채욱, 이초희, 이태완, 이태윤, 이하경, 이하란, 이현경, 이현숙, 이현실, 이혜민, 이혜진, 이희연, 이희자, 이형재, 이천오, 임경선, 임미연, 임성실, 임세리, 임소망, 임소은, 임수옥, 임아람, 임연수, 임윤미, 임준영, 임진, 임지석, 임청화, 임향중, 장보리, 장보미, 장소연, 장수, 장수아, 장애란, 장영수, 장은옥, 장지영, 장지현, 장진미, 장형모, 장효경, 전동권, 전영란, 전미혜, 전수아, 전영호, 전주영1, 전주영2, 전지영, 전진희, 정가은, 정규하, 정광근, 정다운, 정단비, 정동기, 정미라, 정미선, 정미옥, 정민주, 정복택, 정선원, 정상태, 정소담, 정소라, 정소영, 정수화, 정승재, 정여원, 정연희, 정영아, 정유경, 정유진, 정은라, 정은주, 정은희, 정인순, 정제민, 정정숙, 정지연1, 정지연2, 정준주, 정평수, 정현희, 정혜선, 정혜원, 정혜임, 정호순, 정희중, 조경자, 조미남, 조미라, 조민석, 조민지, 조민희, 조성심, 조세희, 조수빈, 조수정, 조아연, 조안연, 조영규, 조영심, 조유경, 조유라, 조은아, 조은영, 조은희, 조장현, 조정숙, 조주만, 조진경, 조하나, 조한경, 조현정, 조현담, 조현영, 조희근, 조희정, 주경의, 주신영, 주원진, 주정현, 진성남, 차현주, 차현주, 차혜원, 채규성, 채경이, 채미진, 채정옥, 채지우, 채훈식, 천경옥, 최가연, 최다희, 최달용, 최민국, 최서운, 최선화, 최성희, 최성훈, 최수희, 최승미, 최아름, 최원재, 최용은, 최유리, 최유진1, 최유진2, 최은경, 최은정, 최이슬, 최인숙, 최인자, 최정용, 최정원, 최주영, 최지영, 최희영, 탁형영, 표수진, 표양희, 하모니카, 하정례, 하정숙, 하태주, 한덕순, 한솔, 한수미, 한아로, 함은숙, 허순주, 허정임, 허충현, 허희정, 현다솜, 홍지희, 홍재원, 홍진희, 황기택, 황성갑, 홍성학, 황순남, 황예성, 한예림, 황우경, 황은혜, 황지운, Fr.Jaime Palma

| 단 체 | 성가롤로어린이집, (주)맥서브, 오픈북
| 동전모금함 | 원무팀, 고객지원팀, 진료협력팀, 장례식장, 광주은행, 파리바게트, 할리스
| 기 타 | 고객지원팀 분실물, 광주은행 분실물
| 후 원 물 품 | 크리스피크림 광양LF아울렛점

| 배아파스식대 | 배요한, 김선희, 송승환, 정윤진, 김봉임, 박지원, 김소연, 위주임, 진순선, 김동후, 이동기, 임지연, 이운서, 전순녀, 강종열, 정용운, 김춘희, 최연심, 장영자, 박옥순, 이효연, 이수민, 지세민, 정종문, 최영애, 다수의 익명인

목상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저에게 작년은 너무나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때나 하느님을 찾던 그 말들이 부끄럽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며 휴식을 하는 동안 가장 먼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
다. 그것도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복직을 하고 드디어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리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내가 잘하고 있나? 나의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 하
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교리를 받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서로를
이끌어주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6개월의 시간 속에서 두 번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
고, '하느님을 갖는 것은 세상의 전부를 갖는 것'이라는 말은 제 가슴을 뛰게 만
들었고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제게 매우 뜻깊은 나날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저의 생각도 긍정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저희 가
족과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앞으로의 저의 삶에는 하느님께서 함께해주시리라 믿으
며, 세례를 받은 오늘은 제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 안에 오신 예수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 은총을 잊지 않고 앞으로 신앙인으
로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시오. 함께하는 7명의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공신장실 박숙영 간호사

세례를 축하합니다

김혁순 마르티노(천우의료기)	문요한 사도요한(수술실)
박숙영 에스텔(인공신장실)	신관수 라파엘(진료협력팀)
이지현 첼리나(OR 관리실)	이태윤 황석두루카(전산정보팀)
최정용 도미니코(구매관리팀)	



견진성사의 은총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받는 성사로서 주교님의 안수와 축성 성유의
도유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사이다. 7가지 성사 중의 하나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성령을 통해 더욱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굳건
히 하는 성사이다. 견진성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는 7가지로 슬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공경, 경외심이다. 요약하면 이미 세례 때 받은 성령의 선
물이 강화됨으로써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
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하게 공적으로 고백 할 수 있는 힘을 복
돋아 주는 것이다. 견진성사를 받기 전 9일 기도와 함께 매주 화요일 3주간 견진
성사를 위한 교리 수업이 진행되었다.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견진
성사 자체가 무언가 거창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견진성사 교리
를 통해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새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

드디어 2023년 12월 17일, 순천 조례동 성당에서 13명의 직원들은 옥현진 대주교
님께 도유와 안수를 받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순간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
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봉사하며 예수성심의 사
랑을 실천하는 성가롤로인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견진성사를 함께 해주신 병원장님, 원목팀장님, 수녀님들, 대모님, 대부님 등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한다. - 건강증진센터 이상미 책임간호사

견진을 축하합니다

김태환 레오나르도(진단검사의학팀)	이미경 아가페(신경과)
김홍주 바실리오(신경생리검사실)	이상미 요안나프란치스카(건강증진센터)
김로암 베네딕토(할리스커피)	손은숙 올리비아(건강증진센터)
김현정 에스텔(약제팀)	하정례 아녜스(건강증진센터)
박지혜 올리비아(약제팀)	정정숙 레지나(중앙공급실)
선정순 스텔라(원무팀)	현다솜 에스텔(수술실)
원내향 크리스티나(사회복지팀)	



가롤로 퀴즈

■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은 이번호 병원보 속에 있습니다.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파riba게트 빵 교환권(1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직원식당에 마련된 응모함에 매일 말일까지 넣어주세요.

- 1월 2일 시무식에서 선포한 매일 2,000명의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자는 운동의
이름은 무엇인가?(6글자)
- 2023년 Q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서는 어디인가?
- 뇌에 피를 공급하는 일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무엇이라 하는가?(3글자)
-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기사는 무엇인가?
① 2024년 시무식 및 CS2000 선포식 개최
② QI 경진대회 성황리에 개최
③ '더 오래 신선하게' 똑똑한 과일, 채소 보관법
④ 단반트리 지리산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1월호 가롤로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수신 : 홍보팀 소속 : 직종 :
성명 : 직통번호 :
가장 좋았던 기사 및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식단

‘더 오래 신선하게’ 똑똑한 과일, 채소 보관법



먹고 남은 과일, 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버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좀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일, 채소 보관의 첫 번째 핵심은 ‘보관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과일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대부분 과일의 온도는 0℃, 상대 습도는 90~95%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복숭아는 저온에 민감하므로 천도와 황도는 5~8℃, 백도계는 8~10℃에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냉장고 냉장실은 4~5℃, 김치냉장고는 0~15℃이므로 저온에 강한 사과, 배, 포도, 단감은 김치냉장고에, 복숭아는 일반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열대과일

바나나, 망고, 키위 등과 같은 열대과일은 실온(대략 섭씨 21~23℃의 온도)에 보관해야 한다. 바나나는 익으면서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 이 반점이 생긴 후 3일 안에 먹는 것이 좋으며, 망고는 약 18℃에서 3~4일 숙성한 후 먹으면 단맛이 강해진다.

먹기 좋게 익은(후숙) 망고는 신문지에 감싸 냉장 보관한다. 그리고 키위는 눌러서 살짝 들어갈 때 먹는 것이 좋고, 실온에서 그린키위는 약 1주일, 레드키위는 5일, 골드키위는 3일 정도면 먹기 좋게 익는다. 익은 키위를 더 오래 두고 먹으려면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열매채소류

열매채소류의 경우 딸기는 0~4℃, 참외는 5~7℃, 멜론은 2~5℃에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오이, 가지 등 저온에 민감한 품목은 10~12℃에 보관하는 것이 알맞다.

뿌리 채소류

무와 마늘, 양파, 당근과 같은 뿌리채소류는 0℃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고, 감자는 4~8℃, 고구마는 13~15℃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잎채소류

배추, 상추, 시금치 등의 잎채소류는 0℃ 정도에서 저장해야 하며, 저장고 안에서 호흡과 증산(식물체 안의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나오는 현상)이 활발해 쉽게 시들기 때문에 투명 비닐봉지나 랩으로 포장해 습도를 유지한다.

두 번째 핵심은 ‘에틸렌 반응성과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에틸렌은 과일을 저장할 때 나오는 ‘식물 노화 호르몬’으로 작물의 노화와 부패를 촉진한다. 이러한 에틸렌은 다른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은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과 따로 보관해

야 한다. 과일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상추, 오이, 당근 등 에틸렌에 민감한 채소도 누렇게 변하거나 반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따로 두는 것이 좋다. 에틸렌 생성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 멜론, 복숭아 등이 있으며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 채소에는 포도, 단감, 키위, 잎채소 등이 있다. 하지만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과 함께 두면 좋은 과일도 있다. 바로 후숙 과일이다. 키위 등 후숙이 필요한 과일과 사과를 함께 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키위의 후숙을 촉진시켜 맛이 좋아진다. 이처럼 빠른 후숙이 필요한 과일 옆에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인 사과, 복숭아 등을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두면 보다 빨리 맛있는 과일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후숙 과일 사과, 배, 감귤, 망고, 바나나, 키위 등
· 후숙되지 않는 과일 포도, 파인애플, 블루베리, 무화과 등
·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과일 사과, 복숭아, 자두, 멜론 등

이와 같은 농산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저장 방법을 통해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더 오래 신선하게 먹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에틸렌에 민감한 품목	사과, 단감, 키위, 참외, 풋고추, 애호박, 오이, 가지, 수박, 콩, 당근, 감자, 시금치, 상추, 양상추, 양배추, 배추, 파, 부추, 근대, 치커리,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품목	사과, 복숭아, 자두, 무화과, 망고, 바나나, 멜론, 참외, 적숙토마토

· 출처 : 대한영양사협회

· 영양팀 한윤지 영양사

가롤로퀴즈정답 & 당첨자(5명)

304호 12월

김기쁨 | 8A 병동 강소현 | 심혈관중환자실
김시규 | 안전총괄팀 송종미 | 소화기센터
조희근 | 방사선종양학팀
*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간호부입니다.

1. 의료봉사단은 11월 11일 보성군 조성면 **대전마을**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2. 11월 21일 외국인 난방용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이주민센터**에 기금 3백만 원을 전달하였다.
3. 콧물, 가려움,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약물의 이름은? **펙소페나딘**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기사는 무엇인가?
① 9B 병동·10B 병동 리모델링 축복식 거행
② 감염관리 우수부서 포상 진행
③ 인류와 함께 해 온 감염병 이야기
④ CS2000 선포식 개최

순천안과 정아름 원장,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12월 15일 순천안과 정아름 원장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우리 병원 전임 안과 과장이기도 한 정아름 원장은 병원과의 인연에 대해 “이전에 근무하면서 애정도 많이 가졌고, 남편이 태어난 병원이자 현재도 재활의학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기부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는 “성가롤로병원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명옥 성가롤로병원장은 “이렇게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려는 고귀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였고, 환자 치료와 지역민의 건강증진, 장비 구입 등 병원 발전을 위해 감사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음 묵상

| 연중 제2주일 |

손수건과 같은 만남

평화를 빕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갑진년)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기념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남 _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청소년사목국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지만, 저는 소임지를 옮길 때마다 이 시를 소개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에게 기꺼이 ‘손수건 신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힘이 넘칠 때 말고 힘이 들 때 기꺼이 손수건이 되어 땀을 닦아주는 신부, 슬프고 힘겨워 자존감마저 무너질 때 손수건처럼 그의 눈물을 손수건에 담아줄 수 있는 신부, 피 흘리는 힘겨워하는 영혼이 있을 때, 손수건으로 그의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신부가 되고 싶은 저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제가



손수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많이 나눠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지내자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1,35-42)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두 제자가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생선이나 꽃송이 같은 만남일까요? 혹은 건전지와 지우개 같은 만남일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라빠’라고 부르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아라.”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만남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에 함께 하룻밤을 보낸 요한의 두 제자 또한 돋보이죠. 이 만남을 복음에서는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요한 1,39).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라빠’에서 ‘메시아’로, ‘스승님’에서 ‘그리스도’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잠깐 스쳐 가는 만남이 아닌 진심을 다한 만남을 했습니다. 서로 함께한다는 믿음이 서로를 변화시켰고, 만남의 의미를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원하세요? 생선 혹은 꽃송이입니까? 건전지 혹은 지우개? 아니면 손수건? 그렇다면 그 만남을 위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기꺼이 손수건 신부가 되리라고 다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손수건이 되어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비린내가 나든, 찢다 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 무엇을 많이 해줬는데 그 마음만 받고 떠나든,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손수건이 된다면 그 만남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저를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만남의 순간에 서로의 손수건이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 장현욱(비오) 신부

이달의 친절직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건우 과장

· 다른 병원에서 폐암이나 결핵 소견을 듣고 김건우 과장님께 왔는데 너무 앞서갔다고 하시면서 검사를 다시 하고 폐렴으로 나와 3일간 입원했다. 환자가 많으면 짜증이 섞일 수도 있는데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미소도 잃지 않으셨다.
· 글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온정을 느끼고 사람 살아가는 정을 흠뻑 받고 갑니다. 자기 일처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영원히 간직할게요.



사회복지팀 원내향 사회복지사

친절하시고 내 일처럼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센터 안연주 책임간호사

바쁜 업무 중에도 언제나 밝은 미소로 고객을 대하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안내하고, 검사받는 고객들 불편한 곳이 없는지 항상 살피는 모습에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주고 본인이 먼저 협조하려는 태도로 임해 줘서 고마울 때가 많았습니다.



내과중환자실 전체

· 간호사님들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명절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삶은 표정 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서 내과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반실로 오게 되어 고마움을 느낍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님들의 헌신적이고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하며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정진하며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관리규정에 의해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 금 주 :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 700-107-500533

광주은행 : 1127-020-225740

농 협 : 317-0005-2620-81

■ 후원문의 | 재무경영팀 ☎ 061)720-6420~1

■ 후원 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법인 포함)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3. 12. 1 ~ 12. 31)

강성일, 고호문, 김금천, 김성례, 김영휴, 김진희, 김행연, 김현실, 나재형, 문지영, 박소윤, 박양석, 박찬수, 서빛나, 안은초, 엄순이, 우초윤, 윤공희, 이태윤, 최현순, 익명 5명, CMS약정자 41명

*이 외 매월 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료일정은 2024년 1월 1일 기준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24-01-12 10:47:49